

세무공무원이 돈 받고 양도세 감면

서부경찰, 거짓 서류 꾸며 4천만원 깎아준 7급직원 둘 적발

공모한 세무사·부동산중개업자 등 3명도 검거

납세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불법으로 줄여준 세무공무원 2명과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돈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광주 모 세무서 공무원 주모(47·7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공무원 이모(44·7급)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주씨에게 돈을 전달한 세무사 김모(41)씨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강모(38)씨와 매도인 김모(53·인쇄업)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1월 시가 4억원 상당의 광주시 서구 마곡동 창고부지 1322㎡(약 400평)를 매매한 김씨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기 위해 동료 공무원 이씨와 공모해 거짓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강씨는 매도인 김씨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받은 뒤 세무사 김씨를 도왔으나, 세금이 8000만원 전액이 아닌 4000만원만 낮춰지자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김씨는 매도인 김씨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면 사려하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주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강씨는 매도인 김씨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받은 뒤 세무사 김씨를 도왔으나, 세금이 8000만원 전액이 아닌 4000만원만 낮춰지자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양도세 감면 수법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양도소득세 깎아주기 사건'은 뇌물을 주면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세무비리가 여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감면받기 위해 이들은 창고용지를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농업용지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농업용지에 농작물을 재배했다는 사실까지 조작했다.

납세자·세무사·세무공무원·중개업자 한통속

창고용지→농업용지 ... 농작물 재배까지 조작

부동산중개업자 강모(38)씨는 지난해 1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땅을 처분하려던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대가로 현금 1600만원을 건넨 것이다.

강씨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강씨는 친분이 있던 세무사 김

모(41)씨를 끌어들여 창고부지였던 김씨의 땅을 농업용지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렸다. 이후 강씨 등은 김씨의 땅 인근 주민들을 찾아가 "세무서에서 실사가 나오면 '꽃'을 재배했던 땅"이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현장실사에 나선 공무원 주모

(47·7급)씨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고, 강씨 등에게 재배한 꽃을 거래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세무사 김씨는 고교 선배인 주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돈을 받은 주씨는 허위로 과세 서류를 꾸며 8000만원 가량 부과돼야 할 세금을 4000만원으로 낮춰줬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김씨 등에게 가짜 '꽃 거래 명세서'까지 만들어 오게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굴삭기 동원 눈 치우기

3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 인근 수협 앞, 폭설과 함께 불어닥친 강추위로 인해 응달진 곳과 보도에 쌓인 눈이 빙판으로 변하자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보도의 얼음과 눈을 치우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날 30일부터 이날까지 15t·8t·5t짜리 열화칼슘 살포기 5대 등을 동원,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방 등 '짜퉁 명품' 전국 유통 3명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인철)은 3일 이른바 '짜퉁' 명품을 전국 거래처에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

로 강모(35·서울시)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내 주택가에 창고를 두고 구치, 샤넬, 루이비통 등 이른바 '짜

퉁' 명품 가방 및 지갑 등 수천점을 전국 각지의 '짜퉁' 판매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달 2일 '짜퉁' 상품을 팔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여수시 여서동 한 거래처에 들렀다

가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들이 갖고 있던 가방과 승용차 등에서는 '짜퉁' 명품 가방 및 지갑 등 200여점(정품 시가 2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의 차량에서 이들과 거래한 광주·전남지역 26곳을 비롯, 인천, 울산시, 경기도 고양시 등 총 40곳의 '짜퉁' 거래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신종플루 방심하다... 전북서 여중생 사망

감기치로 보다 합병증

전북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여중생이 숨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장수의 한 병원에서 전두예수병원으로 이송된 장수 모 여중의 윤모양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뒤 3일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지난달 27일 감기증상을 호소해 장수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튿날인 28일 전두예수병원으로 옮겨져 타임플루 처방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과 이 학교는 사망한 학생과 접촉한 학생 등의 전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 방학 중 신종플루 예방을 지도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 환자나 의심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신종플루도 집단발병이나 폐렴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감시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손 씻기 등을 생활화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 가평에 사는 조모씨도 지난달 25일 감기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신종플루 확진 후 타임플루 처방을 받았으나 같은 달 29일 숨졌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나원침 (8211) 김장두



취업난 고민 20대

번개탄 피워 자살

실업난에 경제적 문제를 고민해오던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일 오후 8시35분 광주시 동구 학동의 주택 2층 방에서 이 집에 하숙하고 있던 김모(25)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박모(여·6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 박씨는 경찰에서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봤더니 (김씨) 바닥에 이불을 덮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김씨 옆에는 불에 탄 번개탄 4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해 광주 모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해왔으나, 취직이 되지 않자 최근 공무원 시험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숨지기 직전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동생을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눈오는 날 스노우 체인 출시다 '덜미'

스노우 체인은 내리는 날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남의 차량에서 스노우 체인을 몰래 훔치려던 20대 2명이 경찰서행.

○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와 임모(23)씨는 지난 1일 새벽 0시경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박모(38·편의점업주)씨의 승용차 바퀴에서 8만원 상당의 스노우 체인 1개를 풀어 훔쳐가고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때마침 눈을 맞으며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박씨의 차량에 장착돼 있던 스노우 체인을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장착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체인이 이용이 편한 윈터치 방식인데다가 노란색이 들어가 화려해 보여서 욕심이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음주 여성운전자 노려 50차례 자해공갈

전북경찰 8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박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새벽 0시30분경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김모(여·47)씨의 승용차에 손목을 들이대 다치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50회에 걸쳐 5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혹가 밀집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나온 여성 운전자의 뒤를 쫓아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h.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남1일